

독도 해역 초긴장

日 오늘 '도발' 가능성...충돌 위기

독도 인근 해역 한국측 배타적경제 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탐사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동해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19일 일본의 동해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탐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2척이 동해 쪽으로 출항했고, 이에 맞서 해경 경비정이 독도 근해 수역에 집중 배치되면서 동해 EEZ 경계선 부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에 정박중이던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2척 중 메이요(明洋, 621t)를 19일 오후 3시 30분께, 가이요(海洋, 605t)를 5시 15분께 각각 출항시켰다.

그러나 2척의 측량선이 곧바로 한국 EEZ로 진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측량선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대책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해상보안청 제8관구 사령부가 있는 사카이항을 떠난 일본 탐사선이 독도 주변으로 직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키섬에 정박해 상황을 지켜보면 서 우리 측 EEZ를 향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척은 최근 도쿄를 출항, 이날 오전 사카이항에 입항했으며 20~25일 중 수로 탐사 명목으로 '동해 도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만일 일본 측량선이 동해 EEZ내 수로 측량을 강행하려 할 경우 해경의 행동수칙에 따라 EEZ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 퇴치 대

日측량선 진입...자위대 인근 훈련 한국측 해경 경비정 18척 배치

응도 마다하지 않는 단호한 대처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은 최대 규모 해경 경비함 삼봉호(5천t급)를 비롯, 동해와 남해에 있던 500t급 이상 경비정 18척을 동해 EEZ 선상 및 독도 근해에 배치했고, 해경 초계기 헬기 2기, 지상지원대대기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한국측 EEZ내 수로 측량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계획을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발행위로 간주,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일본측이 EEZ 침범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내·국제법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처, 저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태를 EEZ 경계선이라는 일회성 사안으로서가 아니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 정부의 물의사적인 국수주의 경향의 연장

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 역사왜곡 시정 차원에서 포괄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 양측 소식통을 통해 외교당국 간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선(先) 탐사계획 철회 ▲EEZ 침범 강행시 '실효적 저지' 방침 등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EEZ 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수로 측량을 강행한다면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일본정부가 독도 인근 해역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9일 울진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탐사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銀 BIS비율 산정 개입 안했다”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세금 1,400억 결정되면 낼 것”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19일 주장했다.

아울러 외환은행의 매각차익과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스타타워 매각관련

세금도 국제심판원의 납부결정이 내려지면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의 매각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 사건의

수사핵심인 BIS비율 조작문제에 대해 “BIS비율 산정에는 은행의 경영진과 이사회, 규제당국과 외부감사 등이 관여했으며 계산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코멘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당시 자본부자를 하지 않았으면 BIS 비율은 4.4%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켄은 또 론스타코리아 책임자였던 스티븐 리에 대해 “횡령 사실

을 시인해 소송과 형사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 검찰의 수사에도 협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상당부분을 스티븐 리 개인의 문제로 떠넘겼으나 그 역시 인수 당시 이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논란거리인 세금문제와 관련, 그레이켄은 “스타타워 매각으로 부과된 세금 1천400억원은 국제심판원의 납부결정이 나오면 낼 것”이며 “외환은행 매각의 잠재이익과 관련, 7천250억원을 은행에 예치했고 세금 납부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정 사상 첫 여성총리 한명숙

“野·국민과 함께 어울림의 향해”

현정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단진 첫 화두는 ‘어울림’이었다.

한명숙 총리는 임명 동인이었던 직후 열린 우리당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호’에 야당과 여당, 국민들과 함께 타고 가면서 어울림의 향해를 하겠다”고 말했다. 화합과 균형의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호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또 “5·31 지방선거를 역사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엄정하게 치르는 일을 꼭 해내겠다”며 “선거기간에 위기라든지 급박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 이외에는 당정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정사에 새 장을 연 한 총리는 유신시절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가 잔혹한 고문을 당한 피해자다. 그가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것은 이화여대와 서울대의 학생연합 단체 ‘경제복지회’에서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를 만나면서부터.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한 총리는 박 교수가 결혼 6개월여만인 1968년 통학당 사건으로 구속되자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이 출감할 때까지 13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교환하며 남편을 닦아냈다.

한 총리는 1970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여성운동을 시작했다. 소외여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사회간사로 활동했지만, 1979년 다른 간사들과 함께 체제 비판적인 각종 이념서적을 학습하고 반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2년간 옥고를 치르고 풀려난 한 총리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조직화를 목표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에 진학했고, 1987년에는 전국 20여개 여성단체를 한데 묶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결성했다. 그는 지난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 비례대표로 ‘제도권’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1년에는 여성부 초대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 총리는 17대 총선 직전 장관직을 사퇴한 뒤 우리당에 입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역구(고양



한명숙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산갑)에서 한나라당의 거물 정치인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한 목소리로 사상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대감을 피력했다. 열린우리당은 여성들은 물론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한 총리가 포용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야당과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송재구씨 내정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송재구(65)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내정됐다.

19일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은 2년 임기가 끝난 송재구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송 전 부시장이 내정돼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조만간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국무총리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임기는 이달부터 2008년 3월 말까지 2년간이다.

송 전 부시장은 고흥 출생으로 광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전라남도 부지사, 광주시 행정부시장, 제2회 비엔날레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리당 여수시장후보 김강식씨

열린우리당은 18일 여수시장 후보로 김강식 남해안발전연구소 이사장을 선출했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이날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김 이사장과 김재철 여수시의원, 조상량 전 서울서초경찰서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여수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 40.9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김 이사장을 후보로 뽑았다.

김 이사장은 여수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실 부서장과 (주)삼우텍스프라자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입지가 좋아 개발이 잘 되는 땅이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광주는 **고분양가**로 가는 중 **그러나** **2년 전 분양가로 내 집 마련하세요!!**

마지막 분양 - 34평형 **취사 입주가능**

계약금 100만원으로 내 집 마련 OK!

신영 **대평 상/고/중/초** **102-55-7818**